

이기는 삶 실패와 역경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나는 긴 시간을 쓰고 있는 나비가 안쓰러워 가위를 가지고 와 고치 구멍을 조금 뚫어 주었다.

이제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렸다.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못한 것이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뚫어 나오려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가운데 날개의 힘을 키우게 되어 있는데, 내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의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그 사람이 자식이나 부하직원이라면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니 조조의 미래까지 같이 생각해서 그들에게 안전과 평화, 안전과 편안함을 선물하기보다는 역경과 고난을 선물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개인들이 리더로 성장하는 데 있어, 조직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실패와 역경보다 더 좋은 스승, 더 좋은 선물은 없기 때문이다.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미물인 독수리도 새끼가 날 때가 되면 높은 동지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한다. 살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다 보면 어느새 바람을 타고 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스스로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게 된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어설프고 어렵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여 그 일을 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경험치가 쌓이다보면 어느새 여유만만한 고수가 된다. 대부분의 신장에게 일을 맡기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절절하다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상사로 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된다.

자존심이 상하고 율화가 치밀어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衝動)에 감정정리를 못 하고 속만 끓이다가 자포자기(自暴自棄)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싶은



정도로 나약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힘이지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다 보면 또 한고비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점점 강해지고 그렇게 백전노장(百戰老將)이 되어가는 것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힘에 버거운 무게를 들어야 하듯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성장할 수가 없다. 어려운 과제를 해낼 때마다 그만큼 강해지고 그만큼 성장한다. 모진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아름답지 않다면 나무로 성장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성장의 기회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가까이 받아들여라.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거울삼아 후배들을 채찍하고 격려하는 고참이 되는 것이다.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다고 했다. 역경을 참고 이겨내는 자가 승자(勝者)가 되는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올바른 법과 철학을 논한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면 상대방도 그만큼 사랑의 은공을 갚는 것이다. 사람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를 하나 님처럼 받들면 상대도 나를 하나 님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다. 세상 말속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였듯이 가는 것이 좋으면 오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 사람이 쉽게 말을 해주니 대수롭지 않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고도의 철학이며 사상이다. 오늘날 이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 님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올바른 법과 철학이며 지상천국을 이루는 법인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요가는 복식호흡과 함께 동작을 취하므로 활성산소(노화의 원인)를 배출하지 않는다. 준비운동으로 경추, 고관절을 소개한다. 봄에는 기초 대사량이 겨울보다 10배가 더 많이 필요하여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춘곤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시하여 미리미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스스로 디자인해보실까요?

●경추(목) 명상

효능: 목과 어깨에 근육을 풀어 경추를 부드럽게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므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움을 준다. 저혈압, 고혈압 효과적.

동작①: 단다사나로 앉아서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대고 들숨과 날숨에 천천히 오른쪽 어깨 쪽으로 기울인다. 왼쪽 귀와 어깨가 멀어지도록 목을 늘려준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②③: 턱을 쇄골 쪽으로 천천히 내리고 10초 유지. 들숨에 고개를 천천히 들어 날숨에 고개를 뒤로 내린다. 10초 유지. 5회.

●고관절(골반) 명상

효능: 우리 몸의 파워존, 골반을 튼튼하게, 골반 유연성, 좌골신경통, 골반에 쌓인 노폐물 제거, 틀어진 골반 교정.

동작④⑤: 양발 바닥을 붙이고 앉아서 양손으로 발을 감싸고 상체를 바로 세운다. 양 무릎을 위 아래로 털어준다. 들숨에 올리고 날숨에 하복부와 골약근을 수축하면서 내린다. 10초 유지. 5회. 자신의 유연성에 따라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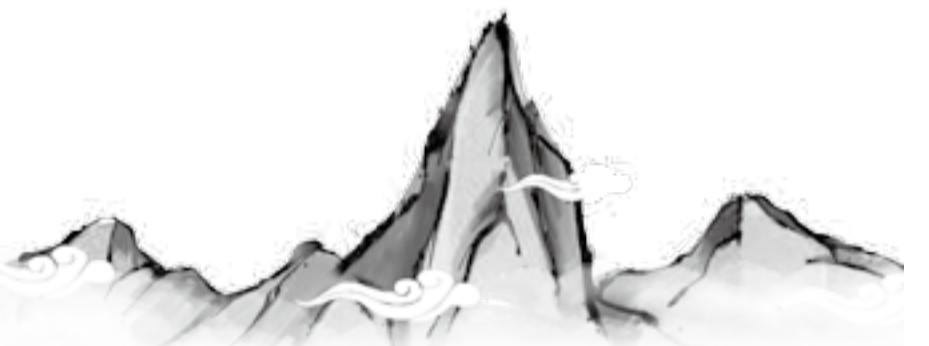


지리(地理) 삼풍 찾지 말고 감로해인인 천리(天理) 삼풍을 찾아야 하리라

三豐論(삼풍론)

三句九食三豐數 삼문구식 삼풍곡을
弓乙之中 궁을자중 차자보세
第一豐 제일풍에 八人登天 팔인등천
惡化爲善一數 악화위선 일곡이요
第二豐 제이풍에 非雲眞雨 비운진우
心靈變化二數 심령변화 이곡이요
第三豐 제삼풍에 有露眞露 유로진로
脫劫重生三數 탈겁중생 삼곡이라
三豐三數世無數 삼풍삼곡세무곡지
十勝十 심승중에 出現 출현하니
鄭氏黎首之民 정씨여수주민으로
兩白三豐 양백삼풍 일뉘네
世末大劫飢死境 세말대겁 기사경에
拯濟萬民天數 중제만민천곡으로
和氣東風久盡悲 화기동풍구진비에
天下蜂蝶呼來 천하봉접호래하니
不死消息永春聲 불사소식 영춘절에
廣濟蒼生 광제창생하여보세
天理三豐 천리삼풍알았거든
地理三豐 지리삼풍알았세라
三豐之理豐基延壽 삼풍지리 풍기연풍을
地理三豐傳 지리삼풍 전했으니

한 달에 아홉 끼만 먹어도 굶주림 없이 불사영생하는 하늘나라 곡식인 삼풍을 궁을 가운데서 찾아보세. 삼풍(三豐) 중에 제1풍(一)은 하늘을 오르는 불 성령으로서 악(惡)한 것을 선(善)한 것으로 되게 하니 첫 번째 곡식이요 제2풍(二)은 구름이 아닌 데서도 진짜 단비가 내려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키니 두 번째 곡식이요 제3풍(三)은 이슬 형상을 하면서 진짜 비처럼 내리는 감로(甘露)로서 탈겁중생(脫劫重生) 즉 인간의 탈을 벗고 거듭나 죽지 않는 존재로 변화하게 하니 세 번째 곡식이니라. 삼풍의 세 곡식은 이 세상에 없는 곡



식으로 심승 가운데서만 출현하니 정도령은 검은 머리를 한 백성 가운데서 나와서 먹고 또 먹으면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양백 삼풍을 알려 주었다네.

말세에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를 때 세계 만민을 구제하는 하늘의 곡식이니라. 온화한 봄바람이 불어와서 오랜 동안 지속된 슬픔이 다하게 되니 벌 나비가 꽃을 보고 날아들 듯 하늘나라 곡식(삼풍)을 찾아 세계만민이 환호하며 찾아오니 영원히 봄처럼 계속되는 죽음 없는 영생의 소식을 전하여 천하 창생을 널리 구제하여 보세. 천리(天理) 삼풍 알았거든 지리(地理) 삼풍 알았어라. 삼풍의 이치가 풍기 연풍이 지리 삼풍이라 전했지만

三豐論 삼풍론에 一曰豐基 일말 풍기
最高福地三豐 최고복지 삼풍인가
耕者不獲獲者不食 경자불획 획자불식
엇지하여 福地 복지이며
食者不生塵霧漲天 식자불생 진무창천
穀種三豐 곡종삼풍 엇지될고
豐基茂壽延壽 풍기무풍연풍으로
地理三豐傳 지리삼풍 전했으니
天理三豐出世 천리삼풍 출세로서
地理三豐不利 지리삼풍 불리로서

豐兮豐兮無情之豐 풍혜풍혜 무정지풍
非三豐 비삼풍이 아니던가
秘文隱理推算法 비문은리 추산법을
式식모르고 엇지알리
兩白三豐非吉地 양백삼풍 비길지를
浪仙子 낭선자의 明示명시로서
三豐海印亦一理 삼풍해인 역일리니
海印造化無爲化 해인조화무위화라
四覽四覽天心化 사람사람 천심화로
不入中邊 불입중변 일치마소
七年大水水境 칠년대한 수온경에
三豐農事 삼풍농사 지어보세
十皇兩白弓乙中 십황양백 궁을중에
三極三乾三豐道師 삼극삼건 삼풍도사
坤三絕化乾三連卦 곤삼절화 건삼연괘
兩白三豐 양백삼풍 아물세라

삼풍론에 한 마디로 풍기가 최고로 복된 땅이요 삼풍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말 간 자가 수확하지 못하고 수확한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담 / 餘談 | 100년 후에는 사라질 기독교

올해 102세인 김형석 교수님을 인터뷰한 기사(2021.1.29)가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의 '현문우담'에 실렸다. 기자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고 묻자 교수님은 행복해지기 어려운 두 부류가 있는데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정신적 가치를 알고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발견한 통찰일 것이다. 교수님은 철학자이면서 기독교인이었다. 어떤 방송에서 교수님에게 앞으로 100년 후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를 물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고,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젊은이는 없고 노인들뿐이라면서 우리나라도 100년 후에는 교회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진단하였다. 필자가 최근 만난 영국인 케빈도 자기나라에서도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이 겨우 14%에 불과하다며 하나 님은 없다고 한다. 또 다른 영국인 사이먼도 신은 없다고 하며 많은 영국인들이 무신론자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내리막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팽팽한 곳은 우리나라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 흔히 보이는 미장원보다 더 많아 보인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잘 되는 이유는 원래 우리 민족이 하나 님을

신앙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코로나가 진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꼭 등장하는 것이 개신교발 코로나 확진 사태이다. 신천지를 이어 열방센터 다음에 마이를 조가 운영하는 IM선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자 성난 한 시민이 광주에 있는 TCS교회에 몰려가 계란을 투척했다. “좀 잠잠해달라 하면 매년 종교단체에서 확진자가 쏟아진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자제할 건 해야지. 종교 활동하는 게 그렇게 급한 문제냐. 지금 힘든 정도가 아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시민이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는 그분의 말이 너무 공감이 된다.

개신교인들의 이기적인 행태는 잘못된 신앙에서 기인한다. 매일 기도하며 자신의 복만 빌다보니 교회에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를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것임을 모르는 그들은 앞으로 코로나19보다 강력한 괴질이 올 때 어떻게 될까? 호희성 구세주께서는 괴질이 돌 때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걸려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진정한 의미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피가 폭폭 썩어서 괴질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김해제단 : (055)327-2072	사천제단 : (055)855-4270	충주제단 : (010)9980-5805	大阪祭壇 : (06)6451-3914
수원제단 : (031)236-8465	대구제단 : (010)6530-7909	순천제단 : (061)744-8007	양평제단 : (010)2945-8254	
안성제단 : (031)673-4635	마산제단 : (055)241-1161	정읍제단 : (010)8628-2758		London : (0208)894-1075
평택제단 : (010)7516-1591	진주제단 : (055)745-9228	군산제단 : (063)461-3491		Sydney : (006)0415-727-001
부산제단 : (051)863-6307	진해제단 : (055)544-7464	대전제단 : (042)522-1560		
영도제단 : (010)6692-7582	영천제단 : (054)333-7121	청주제단 : (010)5484-0447		

원래 사람은 하나 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 님이 될 수 있습니다.